

지도에 나타나는 '일본해'의 역사와 그 대안적 관점

Keiji Kushiya

(일본 니가타대학 공학부 교수)

여러 국가가 둘러싼 바다의 경우,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방향+sea"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붙였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와 달랐다. 아오야마(1993)는 1602년 마테오 리치와 중국이 만든 지도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전 동양지도에서는 바다명칭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서양지도에서는 중국해라는 의미를 지닌 명칭을 찾아볼 수 있다. 1615-22년에는 유럽의 지도상에서 한국해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고, 그 이후 17-18세기에는 중국해, 한국해, 일본해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에도 시대(1868-1903)에 일본해, 한국해가 모두 사용되었으나 한국해가 사용될 때에는 태평양을 일본해라고 칭하였다.

일본해의 표기가 널리 퍼진 이유를 살펴보면, 메이지 시대(1868-1912)에는 일본 천황정부는 근대적 학교체제와 해군을 창설하면서 바다의 이름을 일본해라고 칭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 지리서인 "일본의 지지(1903-15)"에서 예외 없이 일본해로 기술하였다. 일본해로 명칭을 19세기말에 통일한 후, 20세기초에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였고, 이 시기에 한국해라는 명칭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18세기에 지도상에서 일본해라는 표기가 서양의 지도상에서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동양을 서양에 전하던 사절단에 의해 의한 영향이라고 아오야마(1993)는 주장한다. 서양에서 일본해가 알려지던 시대는 항해도가 널리 전파되던 시기였다. 1768-79년 Cook선장의 항법과 수심측량 이후에 해도 사용은 널리 퍼졌고, 그 이후 한국해의 표기는 사라지고 일본해 표기가 대신 사용되었다.

따라서 다음 세기에 우리가 사용할 명칭을 위한 대체 방안을 고려하자면, 우선 우리는 국제적인 명명과 한 국가적인 명명을 구분함과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인 명명에 대해 토론하여야 한다. 2년 전 유엔 회의에서 한국이 동해의 표기를 제시하였으나 일본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한국의 일본 식민지 기간에 한국해의 표기가 사라지고 일본해의 표기가 남게 된 것에 대해 한국도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명명에 대한 국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북동아시아 지역의 해(Northeast Asian Region's Sea)"의 약자인 "NEAR Sea"라고 부르는 것을 제안한다.